



#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주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23-200-465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 (가해) 대림 제1주일

입당 : 95 파견 : 91

###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시편 122, 1-2, 4-5, 6-7, 8-9)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 ◎ Let us go rejoicing to the house of the Lord.

(Psalm 122:1-2, 3-4, 4-5, 6-7, 8-9)

- I rejoiced because they said to me, "We will go up to the house of the LORD." And now we have set foot within your gates, O Jerusalem. ◎
- Jerusalem, built as a city with compact unity. To it the tribes go up, the tribes of the LORD.
- According to the decree for Israel, to give thanks to the name of the LORD. In it are set up judgment seats, seats for the house of David. ◎
-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ose who love you prosper! May peace be within your walls, prosperity in your buildings. ◎
- Because of my brothers and friends I will say, "Peace be within you!" Because of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I will pray for your good. ◎

## 103위 순교 성인

### 12. 성 남명혁 다미아노

Nam Myong-hyog  
Damiano  
(1802 - 1839)



서울에서 태어난 남명혁은 젊어서 무리배들과 어울리며 매우 난폭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나 30세경 입교한 뒤로 모든 세속의 나쁜 일과 손을 끊고 오직 신앙 생활에만 전념하였다. 유방제(劉方濟)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더욱 열심히 살아 이광현과 함께 회장으로 임명되어 예비신자를 모아 가르치고 병약자들을 방문하였으며 또 ‘성의회’(聖衣會)라는 신심 단체에 가입하여 신부를 도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였다. 그는 1839년 기해박해 초 한 예비신자의 밀고로 4월 7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이 때 그의 집에서 제의류(祭衣類), 경본(經本), 주교관(主教冠) 등이 발견되어 포청과 형조의 관원들에게 매우 혹독한 형벌을 당했다. 그러나 남명혁은 모든 고통을 참아 냈다. 함께 체포된 아내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의 분향은 천국이니 주님을 위하여 죽어서 광명한 곳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편지를 써 보낸 뒤 5월 24일 이광현 등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평소 ‘성의회의 치명자 남 다미아노’로 불리기를 바랐던 남명혁은 한창나이인 38세에 자신의 뜻대로 순교하였다.

